

대형 입체 소장품의 관리

김세원, 301호 불교조각실, 18:00~18:30

아름다운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시하는데 있어 필요한 모든 과정은 소장품 관리 업무와 연결됩니다. 소장품 관리 업무의 다양한 부분 중에서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던 수장고에서 반출하여 외부로 이동할 때 반드시 수반되는 과정이 바로 소장품 포장 작업입니다. 소장품 포장은 안정적인 수장고 환경에서 벗어나 운송 중의 불안정한 온·습도와 노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 등 외부 자극에 노출되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중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문화재가 이동 중에 직면할 수 있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포장된 문화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포장할 문화재의 형태, 크기, 무게, 표면의 상태, 재질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직포법, 주물포장법, 서랍식 포장법 등 다양한 문화재의 형태와 재질에 맞춰 고안된 각기 다른 포장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자기의 경우, 솜포데기를 이용하는 직포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마인물형 토기 등 복잡한 기형의 문화재의 경우, 비교적 형태가 단순하고 상태가 좋은 특정 부위를 묶어 선반에 고정하는 서랍식 포장법을 사용하며, 기형이 까다롭고 외부 충격에 민감한 문화재의 경우 틀을 만들어서 포장하는 주물포장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특히 무거운 대형 입체 조형물의 경우, 서랍식 포장법과 직포법을 적절히 혼용하여 포장합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포장법은 수차례 진행된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를 통해 세계에 증명된 바와 같이 안전하고 과학적인 포장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림 1. 춘궁리 출토 철불 포장



그림 2. 포장 상자의 반출 및 운송

부여 송국리 유적으로 본 청동기시대

이진민, 103호 청동기실, 18:00~18:30

국립중앙박물관 청동기실에는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주거 생활과 생업 활동을 보여주는 다양한 발굴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많은 발굴품들이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 출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여 송국리 유적은 1974년 돌널무덤이 발견되면서 알려지게 되어 75년부터 지금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동기시대 마을과 농경생활을 보여주는 송국리 문화라는 개념이 정리되었습니다. 청동기시대가 기원전 15세기 무렵부터 기원전 5세기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때 후반부를 대표하는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국리 문화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송국리식 토기가 있습니다. 돌은띠새김무늬토기, 구멍무늬토기 등 입이 벌어지는 바리 형태의 이전 시기 토기와는 다르게 입이 오므라들다가 살짝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형태를 지닙니다. 송국리 유적에서는 이 토기에 쌀이 보관된 채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기부터 벼농사가 본격화되면서 삼각형 돌칼, 낫 등 새로운 수확 도구들이 등장합니다. 흙자귀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대팻날, 돌끌이 다수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 목재 농경구도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부터 유적에서 목재 절구공이, 고무래 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단병식一段柄式 간돌검과 일단경식一段莖式 화살촉도 이 시기의 특징적인 석기입니다.



그림1. 송국리식 토기

농경생활로 인해 대규모 마을 유적이 형성되는데 송국리 유적에서는 현재까지 100기 이상의 집자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송국리 문화의 집자리 역시 이전 시기의 세장방형 집자리와는 차이를 보입니다. 면적이 줄어들고 집 가운데 기둥구멍이 있는 타원형의 구덩이를 지닌 원형의 집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집자리의 면적이 줄든 것은 농경사회에 들어서면서 생산·소비 체계에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림2. 송국리식 주거지

제64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7월 10일)

도자기가 완성되기까지, 조선 후기 청화백자

김희정, 305호 백자실, 19:00~19:30

근세 전 세계가 청화백자에 열광하였듯 조선시대에도 전 기간에 걸쳐 청화백자를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은 대단하였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 전기에는 중국 청화백자의 수입과 고가의 페르시아산 코발트 안료를 사용하는 것 등을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였음이 문헌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그런데 왕실 전용처럼 보였던 청화백자는 조선 후기가 되면 양반은 물론 부유층을 축적한 상인들까지 널리 소유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의 집에도 청화백자를 쌓아두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로 사치한 풍속이 날로 심하여 이를 금하였다.

- 『承政院日記』, 396冊, 肅宗 27년(1701) 3월 23일조 -

근래에 회회청회靑은 흙처럼 흔하고 화기花器는 나라에 퍼져있다.

- 『承政院日記』, 1105冊, 英祖 30년(1751) 4월 29일조 -

수요층이 확 달라진 조선 후기의 청화백자는 재료나 기호가 조선 전기와 달랐으며, 다양한 문화가 섞여 반영되어 제작되었습니다. 조선 전기보다 더 활발하게 제작된 청화백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청화靑華란? 이름 그대로 푸른색(BLUE)을 띠는 코발트(Cobalt)¹⁾ 안료로 그린 그림을 뜻하며, 이 푸른 안료로 그려 구운 백자를 청화백자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안료를 회청回靑, 회회청回靑, 토청土靑 등으로 불렀으며, 특히 회회청은 서역(현 아랍)에서 중국으로 들어와 조선에서 다시 수입한 안료였기 때문에 매우 고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코발트는 자연에서 순수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사진 1>과 같이 여러 물질이 섞인 흑갈색의 광물형태입니다. 이 광석에서 코발트 안료를 얻기



그림1. 코발타이트 광석 (Cobaltit, CoAsS, 오현광 박물관 소장)

위해서는 정제과정이 필요하고, 흑갈색의 코발트는 1,300℃의 고온을 이겨내면서 신비로운 청색이 됩니다. 최근에는 과학적 분석으로 조선시대 사용된 청화안료의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코발트(Co)는 원소주기율표 중 제8족 제4열의 금속원소로 원자량은 27번이고 융점은 1480℃이며, 비점은 2900℃이다.

청화의 재료적 측면: 조선 전기- $\text{Fe}_2\text{O}_3/\text{CoO}$ 의 비 \uparrow MnO/CoO 의 비 \downarrow (서역산)
조선 후기- $\text{Fe}_2\text{O}_3/\text{CoO}$ 의 비 \downarrow MnO/CoO 의 비 \uparrow (중국산)
근대- $\text{Fe}_2\text{O}_3/\text{CoO}$ 의 비 \approx MnO/CoO 의 비 (인조청화안료, 서양산)²⁾

코발트 안료에는 발색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물질이 함께 존재하며, 그 가운데 산화망간(MnO) 함량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실험 결과 산화철의 비중이 높은 것은 서역산, 산화망간 MnO_2 의 비중이 높은 것은 중국산 안료로 분류되며, 경기도 금사라분원라칠전리 자기편을 분석한 결과 MnO/CoO 비가 높아 중국산 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³⁾ 또한 동일 가마의 일부 편에서는 순수한 코발트 즉, 일본에서 수입된 서양산 안료 사용이 확인되어 조선 후기에는 중국산 청화안료뿐만 아니라 인조청화안료로도 장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헌에서 보이는 조선의 청화안료

조선의 청화안료 개발은 코발트 안료가 고가의 수입품인 까닭도 있지만 중국 명나라의 내우외환(1436~1465)으로 자기 무역이 전면 금지되면서⁴⁾ 근 30년 동안 청화백자 수입이 줄어들게 되자 국내산 청화안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래는 국내산 안료 개발과 관련된 문헌내용입니다.

경상도경차관 유원柳緩이 와서 복명하고, 이어서 여러 고을의 산물을 바쳤는데, 함양군의 금, 진보현眞寶縣의 심중청深重靑, 밀양부密陽府의 회회청回回靑과 비슷한 돌, 장기현의 송철松鐵과 비슷한 석정분石丁粉 및 정분丁粉, 청도군의 녹반석綠礬石 및 연철鉛鐵과 비슷한 돌, 영덕현의 심중청과 비슷한 돌, 의성현의 회회청과 비슷한 돌, 대구군의 백철白鐵이 섞인 황백석黃白石, 울산군의 잡황석雜黃石, 경주의 석철石鐵, 김해부의 잡황청석雜黃靑石, 문경현의 석철石鐵, 기장현의 동철銅鐵과 비슷한 돌, 창녕현의 잡황 사석雜黃沙石과 석철石鐵, 영산현의 연철鉛鐵과 비슷한 돌, 영해부의 녹색綠石, 웅천현의 빛이 나는 백토 등의 물건이었다.

- 『세조실록』 31권 세조 9년(1466) 윤7월 3일 -

전라도경차관 구치동丘致峒이 순천부順天府에서 회회청과 비슷한 돌을 캐냈는데, 사기에 그림을 그려 구워 내는데 쓰인다. 아울러 강진현에서 청철靑鐵을 캐내어서 바치었다.

-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1464) 8월 7일 -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전라도 관찰사에게 치서馳書하기를, "강진현에서 생산하는 회회청은 일찍이 채취하여 시험해 보았더니, 간혹 진실한 것이 있었다. 경은 널리 방문하여 공사간의 사기를 구워 만드는 때에 모를

2) 인조청화안료는 근대식의 제련법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순수한 산화코발트이다. 순수 코발트는 색이 지나치게 민감하여 오늘날에는 백토나 철, 망간 등을 섞어 색을 조절한다.

3) 康芝允, 「韓國 靑華白磁의 科學的 研究」, 中央大學校大學院 科學學 學科 遺物科學專攻 석사학위논문, 2001, pp. 29~31.

4) 세종 30년(1448) 3월 3일 기록에 따르면 "중국에서 청화자기를 금하여 외국사신에게 팔거나 주면 죄가 사형에 이른다고 하니, 이후로는 북경과 요동에 가는 행차에 자기를 무역하는 것을 일체 금단하라" 하였다. 이는 선덕제가 승화한 1436년부터 성화제가 등극하는 1465년까지 내우외환으로 황실자기를 생산하던 경덕진의 운영이 순조롭지 않아 경덕진의 휴업으로 이어졌고 자기 무역도 전면금지 되었다.

지기 회회청과 비슷한 사토沙土를 써서 시험하여 아뢰라. 음인이 이 채색을 얻어서 바치면 혹은 벼슬을 상주
되 초자超資하여 서용敍用하며, 혹은 벼 50필을 상줄 것이니, 본도本道の 거민居民에게 널리 고유하라."

- 『예종실록』 34권 1년(1469) 10월 5일

국내산 청화안료는 토청이라고 불렸는데,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색이 좋은 청화안료를 결국 얻지 못하여 널리 사용되지 못 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중국산 및 일본산 청화안료를 수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후기 청화백자 - ‘운현雲峴’ 이 쓰여진 영지 녕쿨무늬 항아리

청화백자는 중국 원대元代에 본격적으로 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에 활발히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조선 후기 관요였던 금사리에서 많은 제작 양상이 확인되었습니다.⁵⁾ 19세기 청화백자는 조선 전기 여백을 풍부하게 살리면서 간결하고 기품있게 제작되었던 것과 다르게 다양한 형태와 무늬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표형병이나 도룡 혹은 개구리, 다람쥐 등이 붙은 연적, 당시 유행하던 소상팔경 양식의 산수화와 민화 등 매우 화려합니다. 이는 분원에서 제작된 백자가 원칙적으로는 왕실을 위한 것이지만 분원 장인을 국가가 충분히 뒷받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변이 허용되면서 다양한 수요층의 기호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며, 연경과 사행, 청 문물에 대한 동경과 중국의 서화와 당화준 등의 수입으로 화려한 장식에 대한 거부감도 적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림2. 바닥면 ‘雲峴’ 글씨와 왕실 소용이란 의미의 OX 표기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재가 <‘운현雲峴’ 이 쓰여진 영지 녕쿨무늬 항아리>입니다.⁶⁾ 굽바닥에 ‘雲峴’ 이 쓰여 있어 사용처가 운현궁임을 알 수 있는 이 항아리는 맑은 청색의 영지 녕쿨무늬가 가득 채워진 고급스러우면서도 화려하고 이국적인 분위가 느껴집니다. 또한 몸체 아래 부분에 ‘OX’ 표시가 교차되어 띠를 이루는데 이 당시 왕실 소용 자기에서 주로 확인되는 표식으로 왕실 자기임을 뜻합니다.

5) 조선 청화의 제작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때는 관요인 분원이 경기도 광주 남종면 금사리로 이설된 1721년경, 즉 18세기 전반부터이다. 이곳에서 10기의 백자가마터가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9기의 가마에서 청화백자를 제작하였다.

6) 운현雲峴은 이 그릇의 사용처인 운현궁雲峴宮을 뜻하며, 운현궁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사저私邸이자 그의 둘째 아들인 고종高宗(재위: 1863~1907)이 출생하여 12세에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성장한 잠저潛邸였다. 중국적 영향을 받은 영지 녕쿨무늬가 가득 채워져 있는 이 항아리 굽 바닥에는 ‘雲峴’이 청화로 적혀있다.

제64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7월 10일)

특별전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1) 저승의 신, 반트와 카룬

노희숙, 기획전시실, 19:00~19:30

에트루리아의 종교 의식은 내세에도 영혼이 존재한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반트Vanth와 카룬Charun은 에트루리아의 저승의 신입니다. 저승 신의 존재는 죽음의 필연성을 상징합니다.

거대한 날개를 달고 있는 반트(여성과 남성 저승 신령)는 손에 횃불과 두루마리를 들고 있거나 어깨에 뱀을 두르고 있습니다. 반트는 그리스에서는 찾을 수 없는 에트루리아의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카론에 해당되는 카룬은 짧은 튜닉을 걸치고 매부리코에 뾰족한 귀를 가진 대머리 남자로 묘사됩니다. 손에는 망치를 들고 있는데 이는 저승 문지기의 종교적 상징물입니다. 채색이 남아 있는 몇몇의 벽화에서 그의 피부색은 그가 저승으로 안내하는 죽은 이의 피부색과 같은 푸른색을 띠니다. 반트와 카룬은 저승의 문지기로 사후 세계로 향하는 여행에서 죽은 이를 호위하였습니다.

반트와 카룬의 모습은 에트루리아의 유골함, 무덤 벽화, 조각상 등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망자를 인도하는 반트와 카룬이 묘사된 유골함’에는 반트가 오른손으로 망자가 탄 말의 고삐를 끌고 있으며, 왼손에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말 뒤에는 카룬이 오른손에 칼, 어깨에는 망치를 걸머지고 죽은 이의 마지막 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림1. 망자를 인도하는 반트와 카룬이 묘사된 유골함, 기원전 2세기, 구아르나치 에트루리아박물관



그림2. 타르퀴니아, 몬테로치네크로폴리스, 카룬의 무덤